

활력 넘치는 지중해의 귀환: 해초 복원을 위해 손을 잡은 제니스와 메드씨 재단

2022년 7월 7일, 사르데냐: 환경 보호 활동과 더욱 깨끗한 미래를 향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제니스가 메드씨(MEDSEA) 재단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지중해에서 탄소를 흡수하는 해초 이식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전기차 레이싱 챔피언십 익스트림 E의 공식 타임키퍼이자 창립 파트너로서 활약 중인 제니스는 작년 사르데냐에서 개최된 익스트림 E 아일랜드 X 프리 레이스 동안 현지에서 진행되는 레거시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제니스는 메드씨 재단의 주도 하에, 유럽의 보물이자 스위스에서 가장 가까운 개방 수역인 지중해에 포시도니아 오세아니카 해초를 복원하는 이니셔티브를 진행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제니스와 메드씨가 다시 한번 파트너십을 맺고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을 위한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갑니다.

기후 위기의 악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제니스의 다양한 이니셔티브 및 협회 지원 활동의 일환인 메드씨 프로젝트는 제니스 HORIZ-ON 플랫폼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신생 프로젝트로, 향후 장기적인 계획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니스와 메드씨가 주목한 곳은 바로 사르데냐 북쪽 해안의 산타 테레사 디 갈루라 지방의 해양 보호 지역인 “카포 테스타 폰타 팔코네(Capo Testa Punta Falcone)”입니다. 첫 해의 목표는 생기를 잃어버린 200m²의 해저 공간에 꺾꽂이한 포시도니아 오세아니카 뿌리 4천 개를 심어 다시금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메드씨는 이식한 포시도니아의 상태는 물론 프로젝트의 주목할 만한 영향을 측정하며 포시도니아 이식을 통해 절감 및 유지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및 피드백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토록 장엄한 지중해가 전 세계에서 가장 심하게 오염된 바다 중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간과합니다. 모든 유럽인이 사랑하는 장소인 만큼, 이제는 지중해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지금까지 소홀했던 시간을 되돌릴 때입니다. 그래서 제니스는 오늘 겸허한 마음으로 프로젝트 지원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프로젝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환경 보호 활동을 실천하는 HORIZ-ON 플랫폼과 완벽하게 융화되며, 이미 희망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니스 CEO, 줄리앙 토나레(Julien Tornare)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메드씨는 지중해에서 자생하는 해양 식물인 포시도니아 오세아니카 서식지를 복원하고자 합니다. 지중해는 해양 생물에게 있어 중요한 서식지이자 기후 위기를 완화하는 “블루 카본” 저장소로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절감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해수 온도 상승으로 인해 포시도니아의 자연 서식지가 질적으로 저하되면서 지난 몇 년간 해초의 수가 급감하였고, 이로 인해 탄소 절감 능력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실제로 해초는 전반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감소하는 생태계로 손꼽힙니다. 대양저 면적을 점유하는 비율이 단 0.2%에 불과한 해초는 바닷속 탄소의 무려 10%를 저장할 수 있으며, 동일한 면적의 열대 우림에 비해 대기에서 30% 더 많은 탄소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탄소를 포착 및 저장하는 고유의 역량을 지닌 만큼, 해초 생태계를 보존하는 작업은 기후 위기의 영향을 완화하는 과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계에 해당합니다. 또한 “지중해의 허파”와도 같은 포시도니아는 스위스를 포함한 전체 지역을 아울러 탄소 배출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메드씨의 창립자 **알레시오 사타(Alessio Satta)**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제니스와 함께 멸종 위기에 처한 사르데냐의 고유 종인 포시도니아 오세아니카를 시작으로, 지중해 해양 생태계 복원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을 추진할 수 있어 기쁩니다. 메드씨는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복원 활동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제 메드씨는 끈질긴 인내와 굳건한 결의라는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제니스와 함께 더욱 야심 찬 목표와 결과를 추구하려 합니다. 지금이 바로 꿈을 향해 도전할 때입니다!"

제니스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메드씨 재단을 지원하며 특별한 이니셔티브의 추진 과정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제니스: 꿈을 향한 도전.

제니스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꿈을 추구하며 이를 이뤄내는 모든 이들에게 영감을 선사하고자 합니다. 1865년 설립 이후 제니스는 최초의 수직 통합형 스위스 시계 매뉴팩처로 자리 잡았으며, 제니스 시계는 영국해협 횡단 비행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루이 블레리오(Louis Blériot)부터 성층권 자유낙하 기록을 세운 펠릭스 바움가트너(Felix Baumgartner)에 이르기까지 큰 꿈을 꾸며 불가능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온 특별한 인물들과 함께해왔습니다. 제니스는 또한 여성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영감을 불어넣는 드림허스(DREAMHERS) 플랫폼을 마련해 선구적인 여성들의 업적을 기념하고 그들에게 주목합니다.

혁신의 별을 따라 전진하는 제니스는 모든 시계에 인하우스 방식으로 자체 개발 및 제작한 무브먼트를 사용합니다. 제니스는 1969년 세계 최초의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 칼리버인 엘 프리메로를 출시했으며, 계속해서 0.1초까지 측정 가능한 Chronomaster 컬렉션과 0.01초의 정밀성을 갖춘 DEFY 컬렉션을 통해 정밀한 고진동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시간 측정 역량을 드러냈습니다. 혁신은 곧 책임을 의미합니다. 제니스 HORIZ-ON 이니셔티브는 포용성과 다양성, 지속 가능성, 직원의 복리후생이라는 세 가지 헌신을 약속합니다. 제니스는 1865년부터 지금까지 새로운 차원을 향한 열정적인 도전과 함께 스위스 워치메이킹의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나만의 꿈을 향해 손을 뻗을 시간입니다.

메드씨(MEDSEA) 소개

메드씨는 연구자, 사상가, 리더가 한데 모여 해양 보호를 위한 인식을 제고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며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위해 협력하는 공간입니다. 또한 자연을 생각하는 변화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고 구체적인 솔루션을 적용하는 공동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2015년, 사르데냐에서 설립되었습니다.

재단의 목표는 현재 진행 중인 변화를 더욱 가속화하고, 지중해를 생물 다양성이 확보된 안전하고 깨끗하며 건강한, 생산성 있는 바다로 가꾼다는 궁극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만큼 신속한 속도로 생태학적 전환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2022년 7월, 리스본에서 개최된 유엔해양정상회의에서 메드씨 재단과 프랑스의 해양 재단(Fondation de la Mer), 그리고 핀란드의 존 누르미네 재단(John Nurminen Foundation)은 해양 보호를 위한 유럽 재단 연합체의 창설을 천명했습니다. 이번 이니셔티브는 기후 및 생물학적 위기를 겪고 있는 지금, 발트해에서부터 해외 영토를 포함하여 대서양을 지나 지중해에 이르기까지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존 및 복원 활동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https://www.medseafoundation.org/index.php/it/>